

‘프로슈머 르네상스’ 를 앞당기는 플랫폼

특별기고 - 플랫폼



송주빈
전자전파공학
교수

플랫폼(Platform)은 원래 사람들이 쉽게 기차를 타고 내리게 만든 기차역 기능을 의미했다. 요즘은 플랫폼 앞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반이나 도구를 말하기도 한다.

하드웨어 플랫폼이란 표준 규격과 공정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제품의 브랜드는 다르지만 공정과 부품을 규격화해 같은 엔진과 부품들을 공유하면서 더욱 다양한 제품 구성이 가능하고 제품 개발 비용도 낮추는 동시에 품질도 높게 유지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컴퓨팅 플랫폼은 소프트웨어가 동작되는 하드웨어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운영체제 및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포함해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말한다. 즉, 플랫폼이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주는 공통 실행 환경을 의미한다. 개방형 네트워크 특징을 갖는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이 제공되고 있다. 유튜브는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이 동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동시에 소비하는 프로슈머(Prosumer) 생태계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인이 애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란 개념도 생겼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은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글 자체의 지도 서비스 플랫폼이 구글맵이다. 구



글의 강력한 검색 엔진과 더불어 구글맵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지도이다. 구글은 다른 여러 분야의 사업자에게 그들의 비즈니스의 일부로 구글맵을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 이러한 형태를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한다.

애플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을 혁신적으로 결합해 전혀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 성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애플은 휴대폰을 위한 범용 운영체제가 없던 시절에 휴대폰용 운영체제를 만들어 컴퓨터 수준의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만들고 앱스토어를 만들어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앱스토어는 아이폰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의 프로슈머 생태계가 되었다. 앱스토어에서는 누구나 아이폰의 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할 수도 있고 유용한 응용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애플은 이를 위한 운영정책과 지원조치를 갖추어 이 플랫폼을 통하여 애플의 모든 제품에 대한 생태계가 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하여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모바일 기기 시장을 점유하고 가장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애플의 성공 이후로 세계는 혁신적인 플랫폼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플랫폼과 비즈니스 플랫폼은 전통적인

분야와 융합하여 다양한 시너지를 얻고 때로는 기존 산업을 뛰어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플랫폼은 단순히 공학의 영역만은 아니다. 소비심리학, 사회학, 경영,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창의적인 혁신을 이룬 플랫폼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최근에는 앱스토어와 같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사고파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사고파는 플랫폼이 나올 전망이다. 기존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 초 세계 최대 모바일통신 전시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구글은 아라(ARA)폰이라는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아라폰은 구글의 개방형 모듈러 스마트폰 플랫폼을 위한 파일럿 제품이다. 아라폰은 표준화된 모듈을 구성하고 레고 장난감과 같이 원하는 모듈을 선택하여 조합형으로 나만의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 사용자는 아라폰의 프레임에 프로세서, 카메라, 스피커, 센서, 무선랜, 배터리 모듈 등 원하는 종류를 선택해 맞춤형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를 즐기는 사람은 여러 종류의 디스플레이 중에서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성능의 스피커를 선택하고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고용량의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사양을 갖춘 개성이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

구글은 앞으로 스마트폰 하드웨어 모듈을 사고파는 플랫폼을 만들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 통신 하드웨어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들과 같은 개발자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제품의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고 수리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개성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모두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프로슈머 르네상스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유사한 패러다임으로서 3D 프린터의 활용이 의료 보조기와 같은 맞춤형 제작이 필수적인 분야에서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품의 제조가 공장에서 이루어지던 시대에서 이제는 개인이 제조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글의 개방형 모듈러 스마트폰 플랫폼이 성공한다면 기존 제조업체는 큰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하드웨어 모듈러 플랫폼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마당

신유준
(자율전공학 2015)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감수성과 사색을 즐기자

도서·출판업계는 늘 불황이다. 규모가 작은 중소 출판사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리던 얘기다. 중소 출판사뿐만 아니라 민음사나 교보문고와 같은 규모가 큰 업체들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습지나 소설 단행본과 같은 ‘주류 상품’들이 아닌, 시집과 같은 ‘비주류 상품’들은 더더욱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당장 우리학교 주변의 한 서점만을 보아도, 시집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책장 두 줄이 고작인 상황이다.

사실 시집은 경제성이나 시장성이 없는 책이다. 바쁜 현대인들의 감성을 채워주는 것은 시집이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SNS로 올라오는 ‘감성 글귀’들로 바뀐 지 오래다. 사람들이 시집을 찾지 않으니 ‘문학과 지성’이나 ‘창작과 비평’ 등과 같은 나름의 메이저 출판사들도 새로 시집을 내기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시집을 출판해봤자 창고에 재고만 쌓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출판사들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책을 낼 이유는 만무하다. 실제로 주변의 도서관을 찾아도 소설책을 읽는 사람은 종종 볼 수 있지만, 시집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를 읽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색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읽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빠름이 미학인 시대에, 한 숨 고르고 멈춰 서서 천천히 음미해야 하는 시는 어쩌면 이미 수명을 다한 문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학생의 시기에 시를 읽는 것은 꼭 필요한 경험 중 하나다. 배움을 찾아 나가는 학생들에게 시만큼 효과적으로 사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은 없다. 시는 시인의 주관적인 언어로 씌어져 있다. 시를 읽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색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읽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시가고 대학의 마사 누스바움 교수는 저서 ‘시적 정의’에서 지금 사회의 공적 영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문학적 상상력이라 말한다. 문학이 주는 새로운 관점과 감수성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집을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충분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바쁘데 한가하게 시집이나 뒤적거릴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며 푸념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 읽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대학로 앞을 보면 각종 카페들이 즐비해있다. 수 천원을 호가하는 브랜드 커피들이 매일 팔려나가는 모습은 서점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로 놓여있던 시집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도 좋지만, 비슷한 값이면 살 수 있는 시집 한 권이 주는 사색도 필요하다. 대학로 앞 대학생들의 손에 커피잔들 만큼이나 시집을 읽는 학생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1면에서 이어짐

광장은 타자성과 대중성이 발현되는 공공의 공간이고, 밀실이 개인성과 은밀성이 강조되는 사적 공간으로 규정되면서도, ‘외부우스의 띠’처럼 서로의 안과 밖이 연결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1973년판 서문에서는 《광장》이 ‘이데올로기와 사랑’이라는 심해의 숨은 바위에 걸려 다시는 떠오르지 않은 ‘이명준 잠수부’의 이야기라고 요약한다. 《광장》의 이야기는,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 남북의 포로교환 때 납북이나 북쪽이 아니라 제3국행을 선택한 석방 포로 이명준이 해방과 분단, 전쟁을 살아낸 이야기로 요약된다. 작품 속에서 ‘광장’은 다층적으로 활용된다. 처음에는 남한이 ‘정치와 경제의 속물적 광장’으로 호출되면서 비판되고, 이후 ‘새로운 광장’의 모델로 ‘이북’이 선택되지만 곧바로 ‘잿빛 공화국의 광장’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렇게 남북에서 ‘이데올로기적 광장’의 모색이 좌절되고, 남쪽의 윤애와 북쪽의 은혜를 만나




《광장》의 작가 최인훈은 ‘광장’이 ‘운명을 만나는 자리’라고 재정의 했다

면서 ‘광장’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밀실형 광장’으로서 ‘원시의 작은 광장’으로 축소된다. 이어 ‘마지막 광장’이자 ‘삶의 광장’으로 변주되다가 ‘푸른 광장’으로서의 바다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광장’은 갈매기로 환유되는 은혜 모녀(은혜와 뱃속의 딸)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다가 되어, “제 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으로 인식된다. 결국 남과 북만이 아니라 제3국행마저도 거부한 채 ‘푸른 광장’인 바다로 투신한 이명준의 자의적 실종은 ‘사랑의 광장’이라는 유토피아적 공간으로의 상상적 탈주인 셈이 된다.

1960년산 《광장》은 2015년 현재에도 여전히 ‘광화문 광장의 유효성’으로 그 현재적 의미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구호하지 못한 끔찍한 현실이 ‘《광장》의 현재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제 정신으로 ‘광화문 광장의 노란 물결’을 ‘푸른 바다의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1960년에 실종된 이명준은 2015년의 대한민국 호에게 묻고 있다. ‘당신들의 광장’은 안녕하냐고. 그 눈부시게 푸른 광장인 ‘노란 바다’ 앞에서 ‘당신들의 사랑’은 어디로 실종되었느냐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으로, 아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묻고 있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5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2015.07.03~2015.07.30, (4주간)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19개 강의(GC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기간 2015.03.16~2015.04.30(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장학금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내선스장학 신청 가능(추후 공지예정)
- 문의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c.khu.ac.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